



#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여야 난타전

###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공방전 격화 양상 여당 ‘야당의 정치공작’ vs 야당 ‘검찰, 수사 질질끌어’ 추 장관 ‘검찰 개혁을 운명처럼 수용해 최선 다할 생각’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에 질의를 집중했다. 여당은 추 장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 정창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정치군인 정치검찰, 박 전 대통령 추종 정당과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추 장관 관련 논란 부풀리기가 온 나라를 덮고 있지만 국방부 발표로 한풀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같은 당 김충민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 가지고 정치권이 낮바람 가리 않고 싸우고 있다”며 “국민의 힘의 정치 공세가 사실이 아니면 중요한 시국에 허위폭포로 대한민국을

지치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야당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을 향해 “시골 파출소에서 수사해도 진자에 끝냈을 사건을 8개월째 질질 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추 장관에게는 “본인이 문제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이고 그걸 운명처럼 수용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추 장관에게 아들의 휴가와 용산 부대 배치, 평창 동계 올림픽 통역병 관련 청탁 여부를 질의했다. 추 장관은 “우리 가족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창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의대생 단체행동 중단… 학교로 돌아간다

예과 1년부터 본과 3년 복귀 4학년 국시는 여전히 미지수 이에 따라 동맹휴학에 나섰던 예과 1학년생부터 본과 3학년생들은 휴학계를 철회하고 학교로 돌아간다. 주요 대학 개강일이 2주나 지난 시점이지만, 코로나19로 휴학계 수리 및 철회 기간이 평소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원래 휴학계 관련 행정처리 기간은 개강 후 일주일 정도까지였는데, 개강 후 뒤늦게 비대면 강의의 질을 문제 삼으며 휴학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아 지난 학기부터 이 기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의대생들의 휴학계가 행정상으로 접수되지 않은 대학도 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휴학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처럼 바로 처리한 게 아니고, 집단행동인 만큼 학생들의 휴학계를 의과대학 차원에서 보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과 4학년생들이 국가시험을 다시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손영대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석현 의대협 회장도 “국가고시 거부 포함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건 맞지만, 지금 국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응시 뜻을 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정 총리, 추 장관 아들 의혹 ‘경질 이유 아직 발견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아들의 군 복무특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경질될 이유는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경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사실 저는 실제적 진실은 모른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서적 접근보다 사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밝힌 내용이 진실일 것이라 믿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어떤 이유에서든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정은경 “태풍 부는 바다에서 끝까지 항해”

어제 질병관리청 개청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비전 “무거운 사명감 느낀다… 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 과제” 조기에 극복하고, 앞으로 지속해서 발생할 신종 감염병에 대해 전문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대비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뜻과 정부 의지가 담긴 결과”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는 국민 모두 면역이 없어 감염위험이 있고, 무증상 시기 높은 전염력과 전파력으로 잠깐 유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백신 등 해결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우리 의료와 방역체계, 사회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발생 규모와 속도를 통제하는 장기 유행 억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 “아직 우리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며

“질병관리청이라는 새로운 배의 선장이자 또 한명의 선원으로서 저는 여러분 모두와 끝까지 함께 이 항해를 마치는 동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추사에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오늘 새롭게 거듭났다”며 “더 강화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가적 방역대응체계를 갖추자”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기관인 청으로 승격해 지난 12일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비전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청장은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었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이 맡았다. 연합뉴스

# ‘또 다른 아베’ 스가 일본 차기 총리 확정

선거서 아베 정권 계승 표방 한일 관계 당장 변화 없을 듯 스가 요시히데(사진)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신조 총리의 뒤를 잇는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됐다. 그는 16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정식으로 제99대 총리로 선출돼 스가 요시히데 내각을 공식 발족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14일 도쿄도 의 한 호텔에서 실시한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차기 총재로 선출했다. 스가는 이날 압도적인 표 차로 총재에 당선됐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의 394명과 자민당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부 연합회 대표 141명 등 함께 535명에 게 투표권을 부여했는데 스가는 유효 투표 534표중 377표를 얻었다. 총리 지명 선거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실시된다. 자민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스가 총리 선출이 확실시된다. 2012년 12월 26일 아베 총리가 취임 후 7년 8개월여만에 일본 총리가 교체된다. 스가 정권은 큰 틀에서 아베 정권의 방향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스가는 총재 선거에 출마하며 아베 정권 계승을 표명했다. 한일 관계에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스가는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며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 - 2512호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산34-19번지 일원에 월정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농어촌진흥법 제104조, 동법시행령 제 8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관계 도서는 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시청 농정과, 구좌읍 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1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월정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2) 위치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산34-19번지 일원  
3) 사업기간 : 개발계획 승인일 - 2023년 02월  
4) 도입시설 : 기본시설(농업전시관, 학습관), 특산물체험시설, 연수시설(식당, 다목적실, 강의실, 객실 등),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전시장, 야영장 등

**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1) 사업제안자 : (주)JB파트너스(주)디오 대표이사 김진백  
2) 사업비 : 193억원  
3) 면적 : 48,905㎡

**다. 열람기간**  
2020. 9. 15 ~ 2020. 9. 29(15일간)

**라.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시청 농정과, 구좌읍사무소

**마. 기타사항**

1) 편집토지 세목조사 : 개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2) 관련 문의전화 : 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3153), 제주시청농정과(064-728-3092), 구좌읍사무소(064-728-7753)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사업자 제3차 신규·갱신 인증 신청안내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5.6.4)에 따라 2020년 신규·갱신 인증 사업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6차산업화 추진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9.

**사단법인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장**

**□ 신청기간**  
9.1(화) ~ 10.23(금)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접수 마감 후 2주간 서면·현장실사 실시”) \*코로나19사태로 집합설명회 대신 1:1 상담 진행

**□ 신청대상**  
1) 신규인증 - 2020년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신규인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  
2) 인증갱신 - ①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이 20.12.26 만료되는 경영체  
② 인증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인증기업  
\*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1차 농산물 변경 시, 신규인증 신청

**□ 인증자격요건**

구분	세부내용
대상주체	▽ 대상주체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 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소상공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 입지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형태 및 주재료 (종목)	▽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인증표시 가능한 주재료 품목 기재 - 사업계획 제출 시 주재료 품목, 기술, 제품명, 품목, 제품인 인증표시 가능 ①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재료 품목 변경 시 변경신청 ▽ 주원료 공급의 증명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이상으로 하되, 원산지(역)에 따라 다른 시·군·자치단체의 경우 인증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등록 - 가공품의 주원료를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체·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명 확인
사업성과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달성 및 증빙’ -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 40백만원(17년 38,239천원, 18년 42,066천원) - (매출액) 국제성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 대표부 등으로 인정 - 경영실태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고한 경우, 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여, 최근 2년간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기타	▽ 서면 및 현장실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명여부 - (일시적) 4대보험 신고서류, 임원직 신고서, 비정규직 근무확인증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등으로 확인

**□ 인증신청 서류(www.제주6차산업.com)공시사항 또는 자료실 참조)**

**□ 인증신청 접수**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 직접 제출(제주시 청년도 213-65, 2층) 또는 우편접수(2020.10.23.(금) 18:00 도착에 한함)

**□ 문의처**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메일 : stormand@jeju6th.kr / 전화 : 064-722-7917 / 팩스 064-722-7919

제주4·3평화재단 공고 제2020 - 20호

## 제2회 전국청소년 4·3 영어스피치 대회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일은 슬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4·3이 남긴 평화와 인권에 가치를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인류 전체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로 전해지길 바라며, 제2회 전국청소년 4·3 영어스피치 대회를 개최합니다.

2020. 9. 9.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 주 제 : 4·3의 진실과 교훈, 인류평화, 인권선장

• 4·3의 역사적 진실과 교훈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4·3에 대한 개인적 체험이나 기억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이야기

•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소재·주제로 하는 다양한 이야기

○ 참가자격 : 대한민국 청소년(전국 중·고교(대안학교 포함) 재(유)학 확인가능한 자)

○ 참가방법 : 개인(팀이나 단체 불가)

○ 대회일시(본선) : 2020. 11. 14.(토) 14:00

○ 주 최 : 제주4·3평화재단-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 주 관 : 한국유네스코제주협회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9. 9.(수) ~ 10. 12(월) 18:00까지
- 제출내용 : 발표원고(국문&영문), 동영상 파일(녹음파일도 가능) 각 1부 ※ 동영상 제출자 가정
- 발표분량 : 중학생 3분~4분, 고등학교 4분~5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jp43@hanmail.net)

○ 시 상 : 20명

구분	훈 격	수상자 수	상금 (원)
대상	교 육 부 장 관	1명	1,000,000
		1명	500,000
최우수상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고등학생부	1명 500,000
		중학생부	1명 500,000
우수상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고등학생부	2명 300,000
		중학생부	2명 300,000
장려상	제 주 4·3 평 화 재 단 이 사 장	고등학생부	4명 200,000
		중학생부	4명 200,000
입 선	한국유네스코제주협회장	중·고등학생부	5명 100,000

○ 특 전 : 대상 수상자는 2021년 제주4·3평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국외행사 참여 기회 제공

※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jeju43peace.or.kr 문의전화 : 064-723-4307